

○ 해외산업간호정보 ○

## 일본 The 21st UOEH and the 4th ILES International Symposium을 다녀와서

한국산업간호협회 경기지부장, 경원전문대학 간호과 교수  
김 희 곁

2001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기타큐슈에 위치한 일본산업의과대학과 국제산업환경연구소에서 “Occupational Health for the 21st Century : New Developments in New Direction”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WHO, ILO, ICOH의 후원을 받아 이번이 21번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국제학회도 ‘산업장에서의 간접 흡연’, ‘노령 근로자와 근로’, ‘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이란 3가지 주요토픽을 다루는 컨퍼런스를 각기 운영하면서 3일간 주제강연에 이어 오후에는 각 분야별 학술논문의 발표와 워킹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그 간 발표된 논문과 의견들을 모아 산업보건학의 추세를 종합하여 발표하였고, 산업보건현장을 채택하여 선서함으로써 참석한 모든 이들이 다짐을 나누는 하이라이트도 있었다.

처음 일본 학술대회 참석을 결정하면서, 동경도 아닌 소도시에서 국제적인 행사에 얼마나 많은 투자와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자기들 잔치로 끝나는 행사는 아닌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여 보니, 미국의 9. 11 테러사건으로 인한 자국내 여파(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로 미국 측 참석예정자 전원이 참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 세계각지(25개국 이상)에서 모인 학자와 실무자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다시 한번 일본의 저력을 보는 것 같아 부러움이 앞섰고, 우리 산업간호계도 이러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 보기도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 우리 회원들이 참가하게 된 배경은 물론 국제학술대회의 명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몇 년간 한국산업간호협회가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사업의 효과’에 대한 국내 보고에 대한 반향이 무척이나 고무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참가진도 한국산업간호협회 김영희 사무부장(현 인천지부 크린 3D 사업부장)이 선진 외국의 산업시찰과 협회 홍보역할을 담당하였다. 학술발표에는 소규모사업장 보건사업에 대한 연구로 필자가 ‘Effect of



alcohol use behavior control program for workers in small-scale enterprises', 전경자(순천향대, 협회 이사)교수가 'Evaluation of trainers training program for health promotion', 현혜진(강원대, 학회 이사)교수가 'Effect of exercise program for workers in small-scale enterprises'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협회가 그동안 열성을 쏟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의 결과를 다른 나라에 소개함으로써 우리 산업 간호계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여겨졌다.

학술대회를 장식한 주요 흐름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노령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령근로자의 작업능력에 대한 관리, 노령근로자의 신체제한과 관련된 직업성 장애 등 노령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작업현장에서의 동료 관계, 적응, 새로운 직무개발 등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논의가 되었다. IMF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난 많은 근로자들을 떠올리며 이미 노령인구까지 포용하는 외국사례들과 우리 현실이 교차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주제 만큼이나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컨퍼런스로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하지만,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토픽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진행되었고, 학술대회장 복도에는 모니터가 연결되어 입장하지 못한 참석자들에게도 강연을 접하도록 배려해주었다. 특히 참석자들 중 기타큐슈 인근의 산업간호사들은 자신들의 휴가를 할애하면서까지 매년 참석할 뿐 아니라, 저녁시간에도 우리

들을 확대하고 자신들에 대한 소개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사업 경험을 발표한 Shogo Miyazaki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체조시범을 곁들여 마치 휘트니스 클럽에 온 것 같이 심신을 즐겁게 해주었다.

중식시간을 이용해 같은 캠퍼스 내에 있는 간호학과를 찾아 산업간호실습실을 갖춘 지역사회간호 교실을 견학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실습교수가 별도로 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실습장이 실제모습으로 모형화되어 있어서(예: 방문간호 실습용이면 가정집 실내모형으로 되어있음) 현장감 있는 실습이 이뤄지도록 한 점이였다. 기본간호학실의 기자재도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 간편한 코모도 등 마치 병원의 세팅을 보는 것 같은 다양한 실습 기구들과 깔끔한 수납 상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내 관광동안 들린 AIREF(후쿠오카 건강증진 센터)의 Wellness Street는 보다 흥미진진한 곳이었다. 일반인들을 위한 건강상담과 체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양센터에는 수많은 조형식품이 진열되어 있어 카페테리아처럼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 쟁반에 담아 식탁에 앉으면, 컴퓨터로 자신이 섭취하게 될 열량이 제시되어 식습관 개선의 상담자료가 되었다.

비만 상담 후 계단을 통해 올라간 위층에는 스트레스 측정, 앰블런스 시네마, 체력측정과 체력단련을 위한 기구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계단과 슬로프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체험학습은 물론 충분한 위킹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았다(귀국 후 Wellness Street를 송파구청에 건의했더니, 석촌호수 인근 조깅도로 명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모두 즐거워했다). 여기에 주택가의 바둑판같은 골목길, 소형차와 자전거 도로, 아기자기 꾸며놓은 가정집 테라스를 비롯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강점이란 느낌이 다시 한번 실감되었다.

감동적인 것은 대회 마지막날 전원이 다짐한 21세기 산업보건헌장(21st century Occupational Health Charter) 선서였다. 여기에는 노령근로자들이 작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조건을 배려하고, 나이에 구애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며, 작업기술과 작업환경들이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하고, 기술혁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체계를 조성하며, 근무지의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관리, 산업보건과 안전관리 체계를 통한 위험관리를 향상시키는 것,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효과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할 것, 소규모사업장의 산업보건의 향상되도록 지지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건강습관을 통해 건강수명과 근무시기 동안 질적 건강이 이뤄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보건증진을 위해 국제간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 등 11개 과업과 더불어

상세한 행동지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날, 기타규슈 프린스 호텔의 만찬회 한 장면 : 가족이 공연하는 일본 만담이 이어지자 모두들 박장대소하며 환호성을 지르는데 문득 일본 사무라이 문화가 저런 집단적인 열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이질감이 느껴졌다. 후반부의 일본 전통 가부끼 공연은 특이한 화장술에 화려한 용과 가면들, 탄탄한 구성으로 멋진 휘날레를 장식하면서 일본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다.

Guest House의 풍경 : 우리 일행은 잠을 자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마력이 있는 여성들처럼 끊임없이 수다를 풀었다. 같이 오지 못한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10년은 앞서가는 듯한 일본의 발전적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동료에는 더욱 끈끈해져갔다.

